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종교

宗教とは心の中に居ます神様を知ることです

소오쿄오토와 코코로노 나카니 이마스 카미사마오 시루 코토데스

救い主は死なない秘訣を論じ、永生學を論ずるようになっている
구세주는 죽지 않는 비결을 논하고 영생학을 논하게 되어 있다

私は死なない秘訣を科學的に論じている。人が死ぬのは「罪の値で死ぬ」と聖書や佛典には記録されているが、私は其の上に血が腐って死ぬことを論じている。「私という意識」が欲張れば、血は腐る。「私という意識」がヒステリ-を起こしたり、怒ったりしても血が腐る。血が腐るので老いて病んで死ぬ。血が腐らない秘訣さえ分かれば、人は死なないこともある。
이 사람은 죽지 않는 비결을 과학적으로 논한다. 사람이 죽는 것은 '짓값으로 죽는다고 성경과 불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위에 더하여 피가 썩어서 죽는 것을 논한다.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 '나라는 의식이 신경질 내고 회를 내도 피가 썩는다. 피가 썩으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다. 피가 썩지 않는 비결만 알면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どうして聖書や佛典に「神様の心を抱け」「自分を常に捨てろ」と書かれているか。「私という意識」が罪であり善 果だからだ。 어찌하여 성경이나 불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나 자신을 항상 버려라”라고 쓰여 있는가? '나라는 의식이 죄요 선악과이기 때문이다.

それほ「私という意識」が操る通りに考えると血が腐るからである。世のなかの科學者はこのような事實を知らない。「自分を常に捨てろ」という言葉は自分の心を常に捨てろという言葉であり、「神様の中で行え」という言葉はまさに「自分の心の中で行な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言葉である。
即ち, 自分の心が主張する通り考えるなど言う言葉である。
그것은 '나라는 의식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하면 피가 썩기 때문이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 '나를 항상 버려라'는 말은 내 마음을 항상 버려라는 말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 행하지 말라는 말이다. 즉, 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このような話も分からず、上邊だけを嘗めるように聖書と佛典を讀みながら、道の修練をするという人びとがいるが、まことに情けない人達である。
이런 말씀도 모르고 수박 겉핥기로 성경과 불경을 읽으면서 도를 닦는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다.

私は一生を自分自身と闘って自分に勝ったものである。自分に完全に勝ったので死なない秘訣が分かってきたのである。
이 사람은 '나와 더불어 평생을 투쟁해서 '나를 이긴 자이다. 나를 완전히 이겼으므로 죽지 않는 비결을 안다.

考えた通りに血が變わるので神様の考えを持てば、神様の血に變わって腐らない血に變わる。「人は外見通りに行なう」と言われているが、平常、悪い心を抱くと血も悪い血に變わって顔と體は悪い顔と體に變わり、印象が悪くなる。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하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 썩지 않는 피로 변한다.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라는 말을 하는데, 평상시 악한 마음을 품으면 피도 악한 피로 변하고 얼굴과 몸이 악한 얼굴과 몸으로 변하며, 인상이 나빠진다.

しかし、心が力により、血が變わるということは新しい眞理であるから、今日の科學者は知らないのである。
그러나, 마음가짐에 의해 피가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과학자는 모르는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42회

弓乙論(二) 궁을론

龍馬太白靈龜小白 龍마태백령구소백
背山之間出於十字 背산지간출어십자
求人兩白避亂之本 求人양백피란지본
黃字入腹再生之身 황자입복재생지신
脫衣冠履出於十字 탈의관려출어십자
命哲保身天坡祈禱 命철보신천파기도
須縱白虎青林走東 수종백호청림주동
西氣東來再生神人 서기동래재생신인
木變爲馬何姓不知 木變위마허성부지
乙乙合身向面 을을합신향면
左右背乙之間出於工字 左右背乙之間出於工字
좌우배을지간출어공자
世人覺之科學超工 世人覺之科學超工
세인각지과학초공
雙乙相和向面相顧 쌍을상화향면상고
乙乙之合出於凡字 을을지합출어범자
理氣之中大元之數 이기중대원지수

하도의 용마는 태백(太白)이고 낙서의 영구(靈龜)는 소백(小白)이다. 태백과 소백이 합치면 양백(兩白)이 된다. 두 산(山)을 등진 사이(凹)에서 나온 십(十)자 역시 양백인데 인류를 구원하는 양백이 피란의 근본이나라. 양백의 이치에서 인류를 구원할 심승지인(十勝之人)이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황(黃)자의 배에 들어있는 전(田)의 주인 공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분인데 황(黃)자에서 웃, 머리에 쓰는 관, 신발을 벗어버리면 십(十)자가 나온다. 곧 십

승(十勝) 즉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다. 매사에 도리를 좇아 사물을 처리하고 몸을 온전히 보전하려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라. 금운을 좇아오신 동방의 청림도사에게 반드시 달려가라. 하나님이 금운을 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동방에 오시니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며 감(甘)나무가 변하여 말(나무)이 되니 그 어떤 성씨인지 세상 사람은 모르리라.

을을(乙乙)이 합쳤으나 얼굴은 각각 좌우로 향하고 등을 진 모양에서 공(工)자나 오니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묘한 숨씨를 가진 장인(匠人)을 뜻하는 공(工)=장인 공자가 나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6도3략으로 볼 때 나무(木)는 5도 목운 72궁이며 마(馬)는 천마(天馬)로서 궁공의 하(하)님이다. 궁공이 을을에게 도를 전하니 마지막 주인공 6도 81궁 금운의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도수(度數)에 따라 모습을 나누어 천지공사를 하는 것이다. 두 개의 을(乙)이 서로 화합하여 얼굴을 마주 대하여 돌아보면 두 을이 합한 것에서 범(凡)자가 나오느니라. 범(凡) 속에는 천지간의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근본, 근원을 상징하는 일(一)이 들어있느니라.

天地應火諸惡消滅 천지응화제악소멸
心裂門開死後極樂 심열문개사후극락

救い主はこの世を天國に變える事が出来る

구세주는 능히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바꿀 수 있다

「神様の心を抱か」と言ったことは神様が「永遠の生命(永生)」の神様であり、永生の心は神様の心なので、永生の確信を持つなら血が神様の血に變わり、神様の顔と體に變わるからである。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영생)”의 신이요, 영생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므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피가 하나님의 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몸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そして、死のうと思っても死ぬことが出来ず、老けたくても老ける事が出来ない體に變わる。だから、心掛によるのである。
永生の確信を持つためには、人が神様の子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らなければならぬし、また、人が神様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を知らなければならぬ。
神様の心を持てば、聖靈に生まれ變わって神様になるのである。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고, 늙고 싶어도 늙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聖書には「生命の木の實を食べてこそ救われる」と記録されているが、神様の心が、「生命の木の實」であり、「生命の木の實」は聖書の言葉であり、聖書は靈的な言葉である。靈的な言葉は神様の言葉なので、「生命の木の實」は靈的な果物であり、まさに永生をうける心である。
このように「生命の木の實」が何であるかを正確に教えて呉れる人が本物の救い主である。
성경에는 '생명과열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과열'인데, '생명과열'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은 영적 말씀이다. 영적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생명과열'은 영적 과열이요, 바로 영생을 주는 마음이다.
이처럼 '생명과열'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자가 진정한 구세주이다.

聖書や、格菴遺 には露を降らす者が救い主であり、生勃動 であり、チョンドリョンと言った。
正道嶺が出れば天地開闢するとされている。
共產主義を覆す救い主がこの世を天国に えるのはとても簡 なことだ。
성경이나 불경, 격암유록에는 이슬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이며, 생미륵불이며, 정도령이라고 했다. 정도령이 나오면 천지가 개벽한다고 되어 있다.
공산주의를 뒤집는 구세주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뒤집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太初の先祖の神様とアダムとイブの靈も我われの體の中にある 태초의 조상 하나님 신과 아담과 해와의 영도 우리 몸 안에 있다

今日まで、この世の中の人びとは靈とは何であるのか、神が何なのか分からなかった。しかし、聖書には確かに「生命が靈である」事を教えている。
오늘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생명이 영(요 1:1)'이라고 가르친다.

また、「生命は血であり、血は生命である。」という言葉も記録されているが、これは正に「血の作用が心の作用であり生命の根源が心にある」(箴言4:23) という言葉とも連れ合うのである。
即ち心が靈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心が靈なら心の作用は血の作用なので、血が即ち靈であるという言葉である。
또한 '생명은 피이고 피는 생명이다(레위기

불 성령은 악을 없애고 생수성령은 청춘의 몸으로 변화시키며

이슬성령은 탈겁 증생으로 불사영생케 하느니라

三印中之火如雨 삼인지중지화여우
遍濟心靈變化 편제심령변화

恒常喜盤不老長春 恒상희반불로장춘
三印之中海印之水 삼인지중해인지수
甘露舞臨重生之理 감로무림중생지리
心發白花不死永生 심발백화불사영생
無數燈轟三印甘露 무곡등轟삼인량로
石井妙理水昇火降 석정묘리수승화강
湧泉心中毒氣不喪 용천심중독기불상
天牛耕田利在石井 천우경전리재석정

천지간에 응하는 불이 모든 악을 소멸시켜 버릴 때 하나님의 영(진아眞我)을 가둔 마귀의 영적인 애깃보가 찢어지며 마음 문이 열리나니 이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죽은 후에 간다는 극락천당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죽어서는 천당극락에 갈 수는 없다) 이것은 화우로(火雨露) 삼인(三印)중 비와 같이 내리는 화인(火印)의 권능이나라. 세상 사람을 두루 구제하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항상 즐겁고 기쁜 밥상이 되어 먹고 먹으면 영원토록 늙지 않고 청춘의 몸으로 살게 하는 것은 삼인(三印)중의 감로해인의 영생수이나라.

감로(甘露)는 안개처럼 임(臨)하여 사람을 탈겁 증생시키는 이치가 있고 마음을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여 불사영생하게 하느니라. 화우로(火雨露)의 삼인(三印) 감로는 하늘의 양식으로 곡식 없이도 대풍(大

豊)이 드니라. 석정(石井=돌우물) 즉 감로의 묘한 이치는 수승화강(氷昇火降)에 있느니라. 즉 생명의 기운은 상승하고 불 성신은 내려오는 것이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솟아나면 어떤 독한 기운도 사랍을 상하게 하거나 죽일 수 없느니라. 정도령(천우天牛)은 생수수(감로해인)로 하늘의 밭(하나님의 마음 밭)을 가나니 이슬운은 석정(石井) 즉 생수수(감로해인)에 있느니라. 감로해인을 받으려면 나라는 의식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생활을 해야 되며 반대 생활을 하면 감로해인을 받게 되고 감로해인을 받으면 자연히 수승화강이 된다.

彌伽出世萬法教主 미륵출세만법교주
儒佛仙合一氣再生 유불선합일기재생
紫霞南鮮葡藤後裔 자하남선포은후예
柿木出聖東西教主 시목출성동서교주
龍蛇渡南辰巳之間 룡사도남진사시간
桃源仙地海島真人 도원선지해도진인
鷄有四角邦無手入 계유사각방무수입
人間超道躋寶彌羅神 인간초도경미소신
馬頭生角十五眞主 마두생각십오진주
午未樂堂 오미락당
靑龍之後女上加一地邊去土 靑龍之後女上加一地邊去土
淸龍지후여성가일지변거토
狗驚羊喜五十八年 구경양희오십팔년

미륵부처님으로 세상에 나오시니 이 세

宗教は神に對する學問であり、その目的は天國を成し遂げる事にある。
神は靈であり、靈はまた心であるから宗教は天國を成し遂げた人間の心の中
に存在する。
종교는 신에 대한 학문이요, 그 목적은 천국을 이루는 데 있다.
신은 영이요, 영은 또한 마음이므로 종교는 천국을 이룬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17:11)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피의 작용이 마음의 작용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잠언 4:23)라는 말과도 짝이 맞다. 즉 마음이 영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영이라면 마음 작용은 피의 작용이므로 피가 곧 영이라는 말이다.

死んだ人の血が死んだ人の靈である。その血は腐って土になるのではなく、生きている子孫の中にある。皆さんの體はまさに先祖の血で作られた體である。先祖の靈が皆さんの體の中にあるので、死んだ人の靈が天國に行ったとか、地獄に行ったとかいうことはてたらめな言葉である。人が死ぬれば死んだ人の血が子孫の中にあるので、現在、生きている人の血の中には先祖代代の靈が入っている。
죽은 사람의 피가 죽은 사람의 영이다. 그 피는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손 속에 있다. 여러분의 몸은 바로 조상의 피로 만들어진 몸이다. 조상의 영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으므로 죽은 사람의 영이 천국으로 갔다든가, 지옥에 갔다는 것은 헛소리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피가 후손들 속에 있으므로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의 피 속에는 조상대대로의 영이 들어 있는 셈이다.

太初の先祖の神様とアダムとイブの靈も我われの體の中にある。だから聖靈に生まれ變われと言ったのである。
태초의 조상 하나님의 신과 아담과 해와의 영도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라(요한복음 3장 5절)'라고 한 것이다.

「聖靈に生まれ變わり」という言葉は神様に甦れという言葉なので、神様が魔鬼獄に閉じこ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神様がその魔鬼獄を壊して釋放されれば、聖靈に生まれ變わったことになる。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태어나라는 말이므로 하나님이 애깃보와 같은 마귀 욕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귀 욕을 부수고 석방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는 것이다.

だから、「私という意識」が、魔鬼なので、「私という意識」が靈的な墓であり、その靈的な墓に閉じこめられていた神様が釋放されて出れば神様が復活されたことになる。
그러므로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므로, '나라는 의식이 영적인 무덤이요, 그 영적인 무덤에 갇혀 있던 하나님이 석방되어 나오면 하나님이 부활함을 입었다'가 된다.

復活という言葉は聖書の言葉であり、聖書の言葉は神様の言葉であり、靈的な言葉なので、神様の靈の復活を論じたのである。
4年間神學を勉強して卒業すれば、牧師になって聖書を教えるとか(己)의 力を入れるが神の定義も分からない 者が神學者とは言えない。
<부활>이란 말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부활을 논한 것이다.
4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면 목사가 되어 성경을 가르친다고 목에 힘을 주지만 신의 정의도 모르는 자는 신학자라고 할 수 없다.

人の体が靈であり、神である。人に「聖靈に甦れ」という言葉は「神様に再び生まれよ」という言葉であって、神様でないものに「再び神様に生まれ變われよ」とは言えない。
人が神様であるので神様に生まれ變われと言ったのである。
これをきちんと解釋できない 者達が神學を教えると言っているから誠に情けないことである。
사람의 몸이 영이요, 신이다.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므로, 신이 아니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이 신이므로 신으로 거듭나라고 한 것이다.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이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1994年8月14日 勝利者の説教

즉 우성(牛性) 하나님으로 15진주(잠 구세주)이니라. 말(馬)은 12지(地支)에서 오(午)이며 위에 뿔이 나면 우(牛)가 된다.


오미(午未) 즉 병오(丙午) 정미(丁未)에 집집마다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여(女)는 좌질우질(左七右七)로서 14가 되고 한 번 더 14를 더하면 28이 되며 지면거토(地邊去土)는 야(也)로서 여성가일과 같은 말이다. 청룡 즉 갑진에서 28이었던 신미(辛未)가 되며 이때 정도령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게 된다. 구경양희는 경술정미(庚戌 丁未)를 의미하고 기간이 58년이다. 다음 구질의 숫눈이에 담긴 천지비밀로 다시 설명되고 있다.*

박영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만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